

고은 불교대하소설

무욕도 없어지다니

“세계에 숨어 의지할데 없으니
산과 물도 장애물이 못된
큰 바다는 티끌보다 작고
수미산도 겨자씨 속에 들어간다”



우녀와 인담 합두들의 가벼운 재의였는데 사바세계 무욕도 시절의 풍요들이 거의 모이게 되었다. 재석천 천인들도 이런 일은 이 33천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라 해서 그들의 일처럼 기뻐해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재석천신이 환희각천으로 가서 그곳을 살펴보는 동안 선견성 구름공장의 한 전각에서는 온통 무욕도 수행자들이 모여 두런두런 구름자락을 밟고 있었다. 생사를 구름이 일다가 스러지는 것으로 노래한 사람들이 일찍이 저 아래 지상에서는 있었는데 그들이 아말로 하늘 속의 구름들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었으리라.

그런데 이곳 육계 제2천 도리천 32천과 재석천은 온통 구름자락으로 휘감겨 있어서 여러 성인의 누각과 전각들의 기둥에 박혀있는 보석들까지 구름에 잠겨있기 심상이었다.

그리하여 이곳 인다라망의 화려한 빛들도 그 빛이 너무 눈부실까 보아 구름자락으로 가려주는 것인지 모른다.

선견성은 4면이 4만8천수운으로 된 아주 커다란 성이다. 성이보다 차라리 끝간데 모를 하늘 속의 고원이다.

그런 고원이 층층의 건물마다 층층의 구름이 피어오르거나 스러지거나 하면서 어느 곳 하나 조조한 삶이 자리잡을 수 없는 풍요한 시간으로 넘치는 것이었다.

밤낮 하루가 사바세계의 백년인 이곳 천인들의 수명은 1천세였다. 얼마전에 이곳에 올랐은 우녀는 무욕도 해상에서 8만수운의 하늘 속으로 그 영혼이 태어나 이 재석천 천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우녀는 한 성에 정착하지 않고 며칠에 한번씩 다른 성에 속하는 나그네가 되었다.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다. 재석천의 명령 같은 것은 아예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신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그 자신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상태에서 무심코 이 성저 성을 드나드는 무애의 경지에 그가 살고 있었다.

다른 동료들도 저마다 정해진 성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었다.

별써 합두도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는 음악천의 노래삼매를 즐기는 수도원에 있다가 그곳에서 먼 청정천의 성관에 머물고 있다가 이번 모임에 나온 것이었다.

우녀와 합두가 먼저 와 있는데 인담이 남작 무전과 관련 수일 수일들을 데리고 왔다.

누구보다 먼저 이곳 천상을 살았던 만화는 그동안 다른 중생계를 찾아다니는 수행자였다가 다시 한번 이곳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불이는 이곳에 와서도 그 전생이 임춘이었듯이 사인이 되어 천상의 시를 지어 읊고 있었다.

거기에 대해와 소식 그리고 효영 명오 상수 상물과 우식 만우들도 왔다.

하지만 일찍이 이곳 세 쌍둥이 천신으로 태어났던 박월 길생 손풍이는 천상의 업이 남았으므로 천인의 마지막 고통 직전에 다시 한번 천인의 나날을 살고



있다가 우녀가 이곳에 오자 그들이 숨다시피 살아온 서쪽 명조천에서 달려나와 신분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되자 지상의 무욕도시절이 가버린 대신 천상의 무욕도 시절이 온 터여서 그들은 무척이나 즐거웠다.

“과연 하늘의 즐거움입니다.”라고 지난 날 소년 행자였던 우식이 재법 어른이 되어 충무성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니 무욕도 마지막에 우녀와 한동안 있었던 이음없던 선착장 앞길 행자도 우식 만우 뒤에 서 있었다.

“명의 보배는 일곱가지(七寶)인데 하늘의 보배는 백가지(百寶)입니다.”라고 불이가 합두의 천의(天衣) 자락에 맺힌 갖가지 작은 보석들의 빛에 세상 감탄하는 것이었다.

석천에 대해서만 외래적으로 경칭을 삼지만 그밖의 남녀노소의 어떤 차이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상의 만화나 어린 만우가 여기서는 나이 차이가 없는 한 또래로 살고 있는 것이다.

상수가 말을 이어갔다.

“이곳 천인들이 8월 13일 15일마다 모여 진리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천상의 회상에 여러분도 동참하고 계십니다. 물론 나도 거기에 가서 이 수미산 정상

의 진리와 사바세계의 진리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음을 누누히 들었고 나도 그런 말을 이렇게 늘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저 아래의 사바세계 무욕도 시절에 나는 진리조차도 진리가 아니므로 숫재 진리 따위를 말하는 일이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입을 다물어 묵언으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녀는 지금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바세계가 큰 바다로 채워지다니...

“이 것들이 다 천인의 마음 그대로입니다.”라고 세 쌍둥이의 하나인 순풍이가 이곳에서는 가장 우아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되어 마치 음악인 것처럼 그런 말소리를 내고 있었다.

“누구 하나 재석천신 아닌 천신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곳 선견성에 주재하는 그분이 안 계시어도 우리 하나하나가 그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합두도 한 마디 내세웠다.

“이곳 33천이야말로 여인이 이룬 천상입니다. 재석천이 바로 그 여인의 후신 아닙니까.”

효영도 한 마디 거들었다.

“이곳이 아무리 천상이라 해도... 수미산 천상인지라 비록 지상으로부터 아득히 먼 곳이라는 하나 33천 전체가 지상으로부터 솟아오른 땅 위에 있으므로 굳이 말하자면 땅 위의 하늘(地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그들은 서로 만난 감회는 뒤로 하고 권히 천상에서 사는 일들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수가 그런 말들을 끊었다. 말이 말을 끊는 것이었다.

“나는 무욕도로 다시 내려가고 싶습니다. 이 33천에서 사는 일을 다 마쳐야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옛 동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곳 33천에서는 모든 천인이 평등함으로 33천을 대표하는 제

.....
“입으로 말할 수 밖에 없다면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진리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때 그곳에 모인 천인들이 웅성졌다.

그동안 몸과 마음에 뿌리내린, 곧 바른 마음을 가리키기(直指人心)로서의 말과 글이 끊어진 경계에 대한 저항이 상수의 말에 들어있기 때문일까.

그보다는 말과 글이 끊어진 경계를 말과 글로써 표현하는 모순을 인정했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늘 말하고 필요할 때마다 글로 나타내다가 말과 글이 마군(魔軍)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경우에만 입을 다무는 모순이 세상 떠올랐기 때문일까.

상수는 아마 선 수행 자체가 말과 글을 따로 부정하지 않고 그 말과 글을 선의 핵심과 일치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진리를 말하는 일이라말로 진리의 한복판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그것의 가장자리에 닿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곳 수미산 정상에서 이곳 33천의 모든 천인들에게 실컷 말을 하고 다른 세상으로 가고자 합니다.”

.....
우녀도 인담도 그 누구도 상수의 입에서 이런 말이 함부로 나오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그것도 이제까지의 선 수행자들에게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것을 건드릴 도반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저 달마 이래 어느 조사나 선객이 상수처럼 말과 선의 일치를 말한 적이 있었던가. 말과 글은 부정하는 말과 글이 오직 그 권세를 누리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살기를 다하면 무욕도에 다시 내려가 실컷 말하고 실컷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나는 진리와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때 남작이 무척독한 옛모습 그대로 말을 내뱉었다.

“지금 무욕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때야 모두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다시 웅성대는 것이었다.

“무욕도가 없어지다니.”
“무욕도가 없어져?”
“무욕도가?”
“그렇리가...”

상수가 선견성 남쪽하늘의 구름을 헤쳤다. 거기에는 수미산 정상 33천에서 저 지상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그곳 천인들의 눈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지상의 여러 군데를 눈여겨보다가 삼부주가 떠있는 곳에 눈길들이 멈췄다.

그러다가 조선반도 서남부를 자세히 살피기 시작하였다.

아니 조선반도 자체가 없다. 일본열도도 없었다. 어디 그 뿐인가. 바다 건너 청나라도 그 위의 몽골사막도 다 없어진 채 아주 커다란 바다만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할 수가?”라고 인담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우녀가 그런 인담에게 가만히 속삭였다.

“바로 3일전 이 수미산 정상의 33천까지 흔들리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꿈을 꾸다가 그 꿈이 동강나 내 몸도 마구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잠자리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내가 일어나서 다른 곳을 살펴 보았는데 다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천상의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날밤 저 아래 사바세계에 큰 변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수가 구름바다에 풀썩 주저앉았다.

“세상은 말과 글로 말하지 않는구나.”라고 그는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입을 달삭거렸다.

대해가 걸쭉한 얼굴로 앞에 나섰다.

“자아 선법당 본당으로 갑시다.”
.....
“조금 있다가 그곳에서 진리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다.”

그가 지난날 무욕도 건너 해안의 한 미친 사람한테서 들었던 노래를 꺼냈다. 실로 그 기억력이 놀랍다.

세계에 숨어 의지할 데 없으니
산과 물도 장애물이 못된
큰 바다는 티끌보다 작고
수미산도 겨자씨 속에 들어간다

허리띠도 풀고 내려놓고
살가죽 벗겨버린 것을 물으라

천년 상물은 이런 노래에 이랑곳하지 않고 무욕도 생각만 하였다.

“아 무욕도가 없어지다니... 이 세상의 어디에서도 진리는 변화의 진리인가.”

다이옥신 공포를 해결한 경이의 소형 소각로

영우 소각로 특징

- ◆ 세리믹 필터 장벽 매연해결
연돌 하단부에 설치된 특수 세라믹 필터는 다이옥신의 독성을 제거하는 영우소각로 특유의 기술입니다.
- ◆ 대형 소각로보다 월등한 기능
포항공대 · 英 sal사 측정 · 허용기준치 이하 ...0.3 나노그램
- ◆ 초고온 하향식 연소방식
국내유일 특허특 125893호
- ◆ 각급학교, 관청, 기업체, 사찰, 교회 등에 2년간 400대 납품
- ◆ 상시 A/S반 대기
- ◆ 저렴한 가격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였으나 100% 자체기술
이므로 성능에 비해 가격이 싼니다.

매립지 방식의 쓰레기 처리는 매립지 부족, 침출수 발생때문에 한계에 봉착
이제는 태울 수 밖에 없습니다.
관광지 사찰 쓰레기 고민을 매연없이 완전 해결



대표모델 : 시간당 소각능력 50Kg

소각대상물

- 폐지, 폐목, 폐성유, 폐합성수지(PE, PP), 생활쓰레기, 기타 산업폐기물 등
- ※ 수분 30% 이상의 젖은 폐기물이나 프라스틱 및 폐고무가 많이 섞여 있을 경우 소각조기에 연기가 비칠수 도 있습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 관광사찰, 각급학교, 관공서, 군부대, 산업체, 국 · 도립공원, 고속도로 휴게소, 호텔, APT 단지, 병원 및 농어촌, 자연 부락단위 등

